

여대생의 자기성찰에서 드러난 ‘여성으로서 일’의 의미 탐색에 관한 질적 연구

임 윤 서

안 윤 정[†]

동국대학교

본 연구는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일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서울의 남녀공학과 여대 여학생 총 238명을 대상으로 관련 성찰보고서를 토대로 CQR-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여성으로서의 일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4개 영역, 10개 범주, 31개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대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 중에 내적장벽은 ‘여성성에 대한 부정’, ‘비전통적 진로선택의 어려움’, ‘다중역할의 부담’, ‘낮은 자기효능감’ 등 4개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 영역 중 외적장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아들선호’, ‘남녀공학 대학에서 관습화된 성차별 문화’, ‘학교 밖의 일상화된 성차별’, ‘안정성 신화에 가려진 성별화된 직종’ 등 4개 하위범주로 드러났다. 둘째, 의미있는 타인의 영역은 ‘당당하지만 여유없는 직장인 어머니’, ‘헌신적이지만 상실감을 느끼는 전업주부 어머니’, ‘진로단절 극복 후 생기를 얻은 어머니’ 등 3개의 하위범주로, ‘공정과 지지의 아버지’, ‘부정과 강요의 아버지’ 등의 2개 하위범주로 나누었다. 부모 외 직업가계도는 ‘특정 직업군의 영향’, ‘여성 가족구성원의 경험’ 등의 2개 하위범주로, 사회적 관계는 ‘남자친구와의 관계’, ‘선배 또는 친구의 일상적 영향’, ‘롤 모델의 상징적 영향’ 등 3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다. 셋째, 여대생의 참여활동경험 영역 중에 일경험은 ‘조직문화 위계와 규율인식’, ‘다양한 인간관계속 갈등과 대처’, ‘직무에 대한 적성과 흥미의 고려’, ‘고된 노동을 통한 현실인식’ 등 4개의 하위범주로 드러났다. 일경험과 일 이외에 다양한 경험은 ‘다른 세계로의 호기심과 인식확장’, ‘새로운 잠재력 발견’, ‘결핍을 통한 방향과 성장’ 등 3개의 하위범주로 나누었다. 넷째, 성찰이후의 계획 영역의 지향하는 성역할 결정은 ‘육아에 집중하는 가정지향’, ‘독신을 고려하는 일지향’,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가정 양립’ 등 3개의 하위범주로, 진로선택을 위한 활동은 ‘개별화된 자기계발의 노력’, ‘구체적 직종탐색’, ‘전공을 벗어난 열린 진로모색’ 등 3개의 하위범주로 드러났다. 여대생들이 ‘여성으로서의 일’의 의미는 남학생과 다르며, 어떻게 왜 다르게 구성되는지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맥락과 현실적인 분석을 통해 여대생의 진로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논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여대생, 일의 의미, 진로장벽, 의미있는 타인, 참여활동경험, CQR-M

[†] 교신저자 : 안윤정,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Tel : 02-2290-1639, E-mail : ayj1229@dongguk.edu

Freud(1961)는 건강한 사람은 사랑하고 일할 능력을 가진 어른이라고 언급하면서 낙관적 심리적인 기능을 위해 일의 중요성을 개념화하였다. 그는 각 개인을 인간의 커뮤니티에 가장 밀접하게 결속시키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 위대한 영역중의 하나를 일로 보았다. 심리학에서 일과 직업의 논점은 다양한 직업관련 검사의 개발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직업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연구하는 직업심리학의 출현은 인간에게 일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계기가 되었다.

일이란 ‘자신이나 타인에게 가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창출해 내는 활동’으로 여기서 타인에 대한 가치란 사회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한 활동까지 포함한다. 일은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처럼 유용하지만 경제적 보상과는 무관한 활동까지 총칭하는 용어이다(강이수, 신경아, 2001). 무슨 일이든 일 자체를 행한다는 느낌이 중요하며, 일을 수행함으로써 내적인 만족을 얻음과 동시에 개인적인 정체성의 형성이 가능해진다(유홍준, 2000).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의 의미와 개념은 유사하고 누구에게나 공통적이어야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역할을 갖고 있는 대상들에게 이러한 일의 의미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직업심리학에서 대상의 다양화와 여성, 노인, 제대군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 대상에 따른 비교문화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도(김병숙, 2007)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대학생은 성인에 진입하는 시기로 일, 진로, 직업 등을 가장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면서 진로선택이라는 중요한 진로 발달적 과업을 가지고 있다. 한

국의 대학생들은 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인식을 갖기도 전에 진로를 선택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준비생의 신분으로 호명되면서 다양한 장면에서 일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 대학생들이 일을 갖는다는 것은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은 곧 성인의 삶에 중요한 활동이다.

기존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일의 의미를 경제적 보상, 사회적 지위나 인정, 심리적 만족과 자기증진, 일의 속성, 삶의 필수적인 활동 등으로 언급했다(김진숙, 2004). 황매향 외(2013)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보상, 즐거움과 만족, 나를 알아가는 과정 등으로 일의 의미를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두 연구 모두 합의적 질적 연구법(CQR)을 통해 탐색하였으며, 연구결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미에 다른 결과를 지적하였다. 사회적 지위와 인정의 획득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들이 서술한 내용에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독립된’과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다(김진숙, 2004).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남학생에게 치중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 ‘나를 알아가는 과정’과 같이 개인의 흥미를 표현하거나 자아개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의 의미를 갖는다는 응답은 여학생들에게 치중되어 나타났다는 점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다(황매향 외, 2013). 이 두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질문한 것은 대학생으로서의 ‘일에 대한 의미와 개념’이며,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경험과 인식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여성에게 일의 의미가 남성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Astin(1984)은 여성과 남성의 일은 차이가 있어

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남녀 집단 간 차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고, 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여성과 가정에만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일의 의미에 대한 차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과거 여성에게 부여되었던 역할들이 새로이 주부라는 직업 속에 포함되어, 주부는 신분과 직업을 동시에 의미하는 모호한 주체가 되었다(정고미라, 2000). 그런 면에서 여전히 여성이 일의 의미를 인식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모습의 여성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나 진로 이상의 다면적인 특성을 가질 것이다.

직업발달의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직업적 행동과 심리들을 모형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 노력들이 기존 연구에서 발견된다. Gottfredson(1981)은 직업포부에 대한 모형에서 직업발달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사회적 지위, 성(sex), 지능을 지적하면서 직업고려에서 기회의 구조와 장벽을 매개변인으로 소개하였다. Hackett와 Betz(1981)는 여성의 진로발달에 대한 자기효능감 모형을 통해 수많은 진로 관련 행동에서 개인적 효능감의 강한 기대 부족으로 인해 진로추구에 있어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etz(2012)는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으로 이를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고려하는데 있어 특정한 진로영역을 피하도록 하는 사회화된 장벽이 존재하며, 이는 사회화된 행동유형 혹은 신념체계를 의미한다. 그녀는 다중역할의 고려, 제한된 직업흥미, 직업과 성적인 고정관념, 낮은 자기효능감과 성과기대, 교육제도에서의 장벽, 여성을 위한 고등교육의 무익한 환경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여성에게 엄마와 가정주부로서의 전통적 역할의

역사는 그들의 진로선택과 적응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에 전형적인 한계를 만들었다(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Farmer(1976)는 여성의 성취와 진로 동기가 남성보다 낮은 이유를 대학에서 낮은 학문적 자신감, 성공에 대한 두려움, 전통적 진로에 대한 만족, 가정-진로갈등, 여성과 일의 세계에 대한 신화, 낮은 위험부담행동, 성역할 지향 등으로 언급했다. 일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가정에 대한 그들의 결정과 명확한 관련이 있으며, 가정역할에 대한 고려는 여성들의 직업세계의 투자를 제한시킨다는 것이다(Gerson, 1986). 미국 중서부 고등학생에 대한 장기연구에서 과학에 흥미가 있는 여학생들이 간호학을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이를 양육하거나 미혼일 때 혹은 이혼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Farmer, 1997). 여대생이 진로를 고민하는데 있어 다중역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진로를 타협하거나 진로포부를 낮추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인 진로에 안주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대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대생이 인식한 가장 높은 진로장벽은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으로 드러났으며, 남녀공학 여학생이 여대 학생들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인식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제약과 낮은 기대, 여성취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특히 더 높았으며 이러한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성식, 정철영, 2007). 최수옥(2003)에 따르면 비전통적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포부수준이 높았으며, 진로장벽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포부수준이 낮았으며, 진로장벽에 비해서는 비전통적 진로자

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박미경, 김영숙과 이현림(2008)은 여대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기정체성은 진로결정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수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정체성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모님 등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는 자기정체성을 높여주며, 간접적으로 진로장벽과 자기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적으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손은령(2002)은 내적 통제경향을 보이는 여자대학생 집단이 외적 통제경향을 보이는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더 적게 지각하며, 진로결정 수준이 높은 여자대학생 집단이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진로장벽을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진로지지가 직접적으로 진로포부 수준에 영향을 주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 간접적인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수미, 2013). 정서와 정보적 지지가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여대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지방법이며(송보라, 황정은, 이기학, 2008), 어머니의 직업, 사회적 지위가 진로포부에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최수옥, 2003).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는 부모, 친척들과 같이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인종과 민족을 통해 드러났으며(Betz, 2012), 여교사와 여교수는 여대생들의 진로현저성과 교육적 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Hackett, Esposito, & O' Halloran, 1989). 특히 Hackett 등(1989)의 연구에서 남성 역할모델은 과학 관련 전공과 비전통적 분야에 대한 여성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아

버지와 남성 어른들은 여성의 높은 성취의 자기존중감과 남성성을 갖는데 영향을 주었다. 여대생들의 취업욕구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에 비해 관리직과 전문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소 높으며, 희망직업이 남학생에 비해 다양하지 못했고, 관심을 가진 직업의 종류도 남학생에 비해 한정적이었으며, 공공부문 희망비율이 높았다(신선미, 정경아, 구정화, 2008). 또한 여대생들은 고용이나 승진과정에서 성차별 배제, 산전사후 휴가나 보육시설 제공, 탄력채택근무제도 운영 등과 같은 모성보호나 육아 지원을 위한 근로조건이 취업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여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환경은 여성에게 여전히 적대적인데, 직장내 차별과 성희롱의 문제는 평등을 회복하려는 여성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Fassinger, 2002), 진급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리천장의 지속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으며, 고위 관리자 그룹에 매우 적은 수의 여성이 존재함을 지적한다(Yoder, 1999; Betz, 2012에서 재인용). 성별화된 한국의 상황은 기업과 조직문화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분석으로 대변되어 왔는데(조정아, 2000; 이주희, 전병유, Jane Lee, 2004),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 및 양육시기에 집중된 여성의 진로단절 **현실을 보면**, 여전히 여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는 직장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도 드러났는데, 대학사회 자체가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 즉 여대와 남녀공학을 비교하여 여대를 결핍의 공간, 남녀공학을 남성중심적 문화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비판하였다(나윤경, 2005). 여대생들에게 대학은 여대가 됐든, 남녀공학이 됐든 고등교육의 기회를 토대로 활발한 사회

진출을 위한 성취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공간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속에서 여대생들은 대학사회내의 다양한 성차별적 경험과 사회로 진출한 선배여성과 여성 가족구성원을 통해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 일에 대한 의미를 일본 여대생 대상으로 연구한 강영배(2006)에 의하면 직업에 대해 '힘들다', '바쁘다', '혹독하다' 등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늘 바쁘고 힘들며 취직이 된다하더라도 업무와 직장상사와의 관계 유지가 힘들다'고 여기고 있었다. 직업선택에 있어 일 자체에 대한 지향성이 매우 높아 직업에 대해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직업을 자기실현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여대생들에게 일이나 진로는 남학생들과 분명 다른 논점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며, 여대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역할모델 등도 남자 대학생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취업을 강조하고, '커리어우먼'이 당연시 되는 한국의 대학과 변화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여대생들이 인식하는 일의 의미와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으로서 일'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학사회에서 여대생들의 진로적 논점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여학생의 높은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짧은 근속연수와 진로단절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대생에게 일의 의미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지금의 여대생들은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일하는 여성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 성장한 부모세대

가 양육한 자녀들로 예전의 여대생들과는 다른 일에 대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특히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개념화했을 때 어떤 다른 의미들이 도출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 대학생 대상으로 일의 의미를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들(김진숙, 2004; 황매향 외, 2013)과 비교할 수 있으며, 대학생이지만 '여성으로서' 일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대학사회가 여성들을 격려하지도 무시하지도 않는 무익한 환경(null environment, Freeman, 1979; Betz, 2012에서 재인용)이 아니라 직업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진로상담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서 진로과목을 수강했던 학생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4학기 수업을 통해 성찰보고서를 제출한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제출한 성찰보고서 중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 기술되거나, 다른 참고문헌을 활용한 것, 무성의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제외하고, 총 238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남녀공학 여학생 115명, 여자대학교 여학생 123명으로, 두 연구대상은 같은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진로관련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 남녀공학과 여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두 대학 여학생을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전공별 분포를 보면 인문 34명(14.3%), 사회과

학 63명(26.5%), 경상 34명(14.3%), 사범 19명(7.9%), 이공 54명(22.7%), 예체능 34명(14.3%) 등이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합의적 질적 연구-수정본(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이다. 이 방법은 CQR에서 파생된 질적 연구방법으로 큰 표본과 비교적 단순한 질적 자료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CQR의 합의적 요소와 함께 발견 지향적이고 탐구적 접근법을 병합한 방법이다(Hill, 2016). CQR-M은 설문지 같은 다수의 표집에서 얻은 짧은 자료를 연구자들의 합의 하에 신속히 범주를 만들고 자료를 코딩하는 특징이 있다. 자료를 요약하는 핵심개념 구성 및 감수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는 점은 CQR과 다른 점이다(지승희, 주영아, 김영혜, 2015). 그런 면에서 현상을 보여주는 방대한 질적 자료를 연구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Wonnell과 Hill(2000)의 연구처럼 꿈을 해석하고 행동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홍정순(2015)의 진정성 구성개념을 몇 가지의 질문지를 통해 얻어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Hill(2016)은 CQR-M의 연구자들이 그들의 예상, 편견,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서로 상세히 논의하며, 이에 따라 상호 자료에 대해 정확성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개인적인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여대생이 자기성찰을 통해 여성으로서 일의 의미를 개념화하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다.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사회 여성으로서의 인식과 경험, 한 가정의 딸로서의 정체성, 한국의 20대들이 갖는 세대적 특성 등 다양한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일의 의미를 스스로 규정해 내고 있다. 기존의 양적연구로는 이러한 다면적이고 맥락적인 인식과 경험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어, 이에 CQR-M 방법을 통해 이 시대의 여대생이 인식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일의 의미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과 관계들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자료수집과 분석

성찰보고서의 주제는 ‘여성으로서 나에게 일의 의미’로 책이나 영화 등 다른 참고자료 없이 스스로의 삶과 경험을 토대로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분량의 제한을 두진 않았으나, A4 2장 이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글이나 워드를 활용해 텍스트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에 앞서 두 연구자는 수시로 각각 여대생과 관련된 다양한 편견여부와 상호 이해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CQR-M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견과 기대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연구의 질이 높아지며, 본격적인 연구의 전 단계에서 연구자의 기대와 편견을 기록하면서 연구자들의 자기인식과 자기이해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Hill, 2016). 연구자의 편견을 확연히 드러냄으로써 분석과정에서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 서로가 경계심을 가지고 편견의 영향을 인정하고 이를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 연구자가 살아온 다른 경험 속에서 여대생, 혹은 여성을 둘러싼 인식을 공유하고, 각 연구자의 편견이나 비합리적인 신념 등을 목록화하여 분석과정에서 텍스트를

과잉해석하거나 의미를 축소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며 분석에 임했다.

연구자들은 인쇄된 전체 보고서를 우선 **자유롭게 읽고 그 소감**과 생각들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를 우선 정리했고, 각자 다시 나누어 보고서를 검토하고 의미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자료를 유목화하고 단위별 핵심개념을 메모하였다. 개별적인 검토를 거친 후 범주와 영역을 나누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원자료를 토대로 여러 번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다.

영역과 범주가 정해진 이후에도 다시 원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기존의 범주와 영역이 합쳐지고 쪼개지는 과정을 거쳤으며, 몇 번의 반복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범주와 영역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정해진 범주와 영역에 해당되는 자료를 코딩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었으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따로 표시하여 반복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과정을 통해 4개 영역과 10개 범주로 나누었으며, 최종적으로 결정된 영역과 범주에 기초하여 다시 31개의 하위범주로 나누고, 코딩표를 만든 다음, 전체 보고서에 표시된 코드를 보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보고서에 동일한 범주에 해당되는 문장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라도 한 번으로 빈도수를 표시하였고, 다양한 범주에 속할 경우는 중복으로 빈도를 세었다.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의 성찰보고서에

서 '여성으로서 일'의 개념과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석과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4개의 영역, 10개의 범주, 3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각 영역과 범주별로 표로 정리하였다. 빈도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생생한 성찰 내용과 경험을 전달하기 위하여 성찰보고서 중 일부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진로장벽

이 영역은 여대생들을 둘러싼 사회화된 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선택을 제한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내용이다. 대부분의 연구대상자들이 서술한 내용은 중복된 경우가 많았으며, 반복된 내용을 배제하고 차별화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성찰보고서에 나타난 진로장벽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 범주인 내적, 외적 장벽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장벽들은 4가지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진로장벽 영역은 총 272개로 추출되었고, 내적장벽은 130개, 외적장벽은 142개로 분류되었다.

내적장벽

내적장벽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대생이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좌절 등을 의미한다. 이 범주는 '다중역할의 부담', '낮은 자기효능감', '비전통적 진로선택의 어려움', '여성성에 대한 부정' 등 네 가지 하위범주로 세분화되었다. 네 가지 범주의 빈도를 보면 내적장벽 130개 중 '다중역할의 부담'이 75개로 여대생이 미래의 결혼과 육아에 동반되는 책임에 대해 커다란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녀공학보다는 여대 여학

표 1. 진로장벽

범주	하위범주	빈도(272)	핵심주제
130			
내적장벽	다중역할의 부담	75(31.5%)	여성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부담감
	낮은 자기효능감	26(10.9%)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과 기대가 낮음
	비전통적 진로선택의 어려움	16(6.7%)	여성 진출이 저조한 영역의 전공과 직업선택의 어려움
	여성성에 대한 부정	13(5.5%)	개인의 성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함
142			
외적장벽	학교 밖의 일상화된 성차별	65(27.3%)	취업, 임금, 승진 등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여 성에 대한 차별을 의미함
	안정성 신화에 가려진 성별화된 직종 남녀공학	36(15.1%)	교사나 공무원 등 안정적 직업을 희망하는 이 유는 여성의 다중역할을 병행하기 위한 것임
	여전히 존재하는 아들선호	23(9.7%)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풍조가 남아 있음
	대학에서 관습화된 성차별 문화	18(7.6%)	수동적인 여성성을 더욱 강요하며 대학 문화와 제도 전반에 남녀차별이 존재함

생들의 성찰보고서에 ‘다중역할에 관한 부담’이 더욱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여성들만 있는 공간에서 다른 여성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더 많이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래의 예시들을 보면, 결혼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여대생들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욱 컸다. 육아에 대한 여대생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인데,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내 꿈을 포기하는”, “내 발목을 잡는” 등의 극단적 표현도 자주 발견되었다. 결혼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시각을 가지며, 남편의 역할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였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활동을 하면서 자아성취를 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에 과연 아이가 있어야

만 하는가...” (남녀공학, 법학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대, 중문학과)

“생물학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특화된 여성의 입장에서 가정의 아내와 아이의 엄마라는 조연의 삶이 아닌 주체적인 인생길에서 끝없는 갈등에 부딪히고 만다.” (여대, 섬유예술학과)

“남편과 나 둘 중 하나가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나일 것이라는 무의식” (여대, 국제사무학과)

“여성에게 직업이란 출산, 육아, 가정과 잘 병행해야 하는 고된 일이다. 아직까지 한국사회, 특히 기성세대에서 출산, 육아,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우세하다.” (남녀공학, 경제학과)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일, 남성의 일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직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인정해 주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서서 사실 결혼을 하기가 꺼려지게 된다.” (여대, 사회학과)

내적장벽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낮은 자기효능감’은 여대와 남녀공학 여학생들에게 고르게 도출되었다. 대표적인 내용들을 분석해보면, 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이 낮은 몇 가지 이유가 확인되었다. 취업과 사회에서 여성이 당하는 차별에 대한 위축감,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조직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미래에 예상되는 진로단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여대생들의 서술도 적지 않았다.

“향후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나 봉급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될지도 모르는 여자인 내가 선택하기엔 차라리 기업에 취직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빚어낸 결과였다.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 (남녀공학, 법학과)

“이러다가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직장에서는 남자직원한테 기대고 결정 못하고 제대로 나의 재능을 맘껏 못 펼쳐 볼까봐 걱정이 되고 겁이 난다.” (여대, 관현학과)

“여성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고, 뻣뻣하고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생활을 견딜 자신이 없기 때문...” (남녀공

학, 생명과학과)

“여성이 취업을 하는 것의 고충을 알고 있고, 나 역시 취업이 녹록치 않으면 일단 결혼을 해야겠다는...” (여대, 행정학과)

“갈수록 어렵다는 취업난을 뚫고, 남성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에 대해 일찌감치 겁을 먹고 현모양처에 대한 로망이...” (여대, 사회학과)

내적장벽의 또 다른 하위범주인 ‘비전통적 진로선택의 어려움’(16)의 내용에서는 남녀공학과 여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단, 남녀공학에서 공대 여학생의 특수한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 여전히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공대에서 여학생들은 자신의 여성적 특성을 숨겨야만 비전통적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대생들 대부분은 전공과 진로 선택에서 본인의 주도보다는 가족과 주변인, 사회 시선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비전통적 직업군에 대해 본인의 관심이 있더라도 가족의 조언, 주변의 편견, 남성 중심의 영역에서 오는 차별 등과 연계되면서 지속적인 진로지향을 갖기 어려워 방황으로 이어진다.

“처음에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하는 시선이 많았다. 대부분의 반응은 '남자들이 많은 곳에서 네가 잘 할 수 있겠냐'는 반응이었다.” (남녀공학, 컴퓨터공학과)

“요즘 어떻게 하면 성을 구분하지 않고, 엔지니어로서의 나 자신을 내보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여자'라는 성을 붙여서 구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 (남녀공학, 컴퓨터공학과)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이러한 현실을 다 알기 때문에 선생님, 공무원과 같은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자식들 특히 딸에게 추천한다. 우리 엄마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대, 통계학과)

“여성은 일을 함에 있어서 남성과 다른 기대가 부여...주변사람들의 반응도 더 고려하고 여성은 가정에 소홀한 직업은 아닌 것...” (여대, 영상디자인과)

“집안의 반대와 여성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희소가치가 없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크다는 이유로 나의 진로는 마음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게 되었고” (남녀공학, 법학과)

내적장벽에서 가장 빈도가 낮게 나타난 ‘여성성에 대한 부정’은 주로 여대 여학생들에게 더 자주 확인되었다. 이는 여대 특유의 정체성에 의한 자각과 통찰 때문으로 보인다. 남녀공학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자신이 더 한계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서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로 확인된 내용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이기기 위해 여성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근본적으로 여성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 여성을 배려해야 하는 약자로 규정해 버리는 점, 사회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엮여 있었다. 특이한 점은 여성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체가 ‘여성 자신’이며, ‘남성성이 더 뛰어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드물지 않게 발견되었다.

“남학생들과의 사이에서 잘 어울리고 끝까지 남기 위해서는 기존에 통념적인 여자다운 배제해야...임신과 출산의 제약 없고 체력도 힘도 좋고 군대 이후 상명하복

에 익숙한 남자들이 더 선호 받는 게 당연” (여대, 경영학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박혀 버린 데에는 고지식한 사람들의 편견도 있지만 여성들 각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자라는 것을 악용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여자들...” (여대, 동양학과)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녀공학, 경찰행정학과)

“여자를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는 때때로 남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남녀공학, 영어통번역학과)

외적장벽

진로장벽의 두 번째 범주인 외적장벽은 여성을 둘러싼 외부환경에서의 장벽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통해 주어진 다양한 고정관념과 편견, 성차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적장벽보다 다소 많은 142개가 추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대생들은 내적장벽보다 외적장벽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적장벽을 하위범주로 나누어본 결과 4개의 세부내용으로 분류되었다. 빈도 순서로 보면 ‘학교 밖의 일상화된 성차별’(65), ‘안정성 신화에 가려진 성별화 된 직종’(36), ‘여전히 존재하는 아들선호’(23), ‘남녀공학 대학에서 관습화된 성차별 문화’(18) 등이다. 하위범주에서 특이한 점은 여대보다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을 차별하는 관습적 문화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적장벽에서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학교 밖의 일상화된 성차별’의 내용을 보면 여대와 남녀공학 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기업에서 여성을 뽑는 것을 기피한다는 사실은 주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었다. 같은 과의 선배들 중에서도 남자 선배들보다 훨씬 뛰어난 여자 선배들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를 접해왔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컴퓨터공학과)

“여성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많은 하나는 회사에서 여성이 직업의식이 남성보다 낮다고 여기기 때문...” (남녀공학, 국제통상학과)

“일반기업에서 여성이 어느 수준 이상의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점에서 씁쓸한...” (남녀공학, 경영학과)

“취준생들 끼리는 ‘여자인 게 죄야.’라는 소리도 종종 한다...기업은 남성보다 여성들이 성과가 더 저조할 것이라 생각...” (남녀공학, 중어중문학과)

“항상 커피 타거나 청소하는 잡일을 여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일도 비밀비재하기 때문” (남녀공학, 사학과)

“승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고 임금에서도 남녀 차별이 있는...” (여대, 소비자학과)

“친구는 인턴으로 있다 결혼을 하자 갑자기 정규직 전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다는...” (여대, 국문학과)

“여성이 임신을 하면 상사는 조용히 지금 그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곳과 상당하면 지부로 발령을 내려...승진에서 불리하게 만들고...” (여대, 보건학과)

또 다른 하위범주인 ‘안정성 신화에 가려진 성별화 된 직종’은 여대생들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였다. 여대생들의 불안감은 직업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을 보여준다. 여대생들이 제시한 직업은 교사, 공무원, 약사, 간호사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직업군을 선택하려고 한 이유는 사회에 일상화된 성차별을 조금이라도 받지 않기 위해, 다중역할의 부담을 극복하려고,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등이 대부분이었다. 비전통적 직업군과 관련된 전공을 가진 여대생들도 안정성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여성 혼자 독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봉이나 사회적 평판이 아닌 안정성이었다.” (남녀공학, 행정학과)

“취직을 준비 하고 있는 언니들의 대부분이 공무원, 간호사, 교사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안정적이고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을 비교적 덜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한다는 것” (남녀공학, 경제학과)

“부모님은 내가 꼭 약사가 되기를 소망...여성으로써 전문직을 갖는다는 건 큰 메리트라고 엄마는 항상 말씀” (남녀공학, 생명과학과)

“저희 집안 여자들에게 공무원의 장점에 대해 매번 말씀.. 특히나 여자에게 가장 좋은 직업은 공무원이며...” (남녀공학, 행정학과)

“여성들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 선생님 등과 같은 공무원이나 전문직을 선호” (여대, 경제학과)

“여성에게 직업사회란 얼마나 혹독하고 가차 없는 곳인지에 대해 수많은 기회를 통해 교육받는다. 우리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의 결론은 공무원이 되는 것” (여대, 국문학과)

“엄마도 항상 나에게 여자가 안정적이게 학교에서 체육교사를 하다가 시집을 가라고 하신다.” (여대, 체육과학부)

‘여전히 존재하는 아들선호’ 하위범주는 과거에 비해 남아선호 사상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 범주에서는 단순히 아들선호사상 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에 비해 여자아이에게 왜곡된 여성성을 강요하는 가족에 대한 내용이 주로 확인되었다. 가족 중에 조부모 세대의 영향이 가장 많았고, 학업차별, 보조적 역할자로서 여성성 강요, 남자 형제와의 공공연한 차별 등이 주로 제시된 내용이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자라온 가정환경과 주위사람의 영향이... 명절 때마다 항상 남자들과 여자들은 곱상할 수 없었던 것, 청소도 매번 사촌오빠를 뺀 언니와 나만 해야 했던 것들, 서운했고 동시에 피해의식이 생겼던 것” (남녀공학, 경찰행정학과)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사랑에 더 마음이 있으시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의 미움을 사고, 할머니의 귀여움과 애정은 남동생이 독차지” (남녀공학, 행정학과)

“여자처럼 밥을 조신하게 먹어라, 여자처럼 행동해라 등등 ‘여자처럼’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 (남녀공학, 경영학과)

“여대에 다닌다고 하면 ‘시집 잘 가겠네, 아나운서는 시집 잘 갈 직업...’ (여대, 언론정보학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여자는 적당한

대학 나와 예쁘게 커서 좋은 남자 만나... 반면 남동생에게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하니 열심히 공부해라” (여대, 사회학과)

‘남녀공학 대학에서 관습화된 성차별 문화’에서 여대생들은 다양한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교수와의 관계에서 받는 차별,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의 대표성에서 겪은 차별, 군대문화, 술 문화에서 오는 차별 등이 다수였다. 특히 남녀공학의 공대 여학생들이 느끼는 첨예한 성차별 문화가 높은 빈도로 확인되었다. 여대의 여학생들은 남녀공학에 다니는 지인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남녀공학의 여학생들은 일상화된 차별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 진학이후 중, 고등학교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불편하기보다 당황스러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당연하단 듯이 남성이 도맡아 하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었다.” (남녀공학, 건설환경공학과)

“‘왜 우리 과의 교수님들은 모두 남성분들이실까?’라는 의문점이었다. 교양 수업이나 다른 과의 수업을 듣다보면 여성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유독 우리 과의 교수님들은 모두 남성 교수님” (남녀공학, 컴퓨터공학과)

“대학에 와서도 과의 지도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 남자교수님이라는 사실도 방금 글을 쓰면서 느끼고, 수업도 대놓고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남자 위주의 수업이 되는 것도 참 아쉽단 생각” (남녀공학, 연극학과)

“연합동아리를 들어갔는데 대표나 중요

역할은 남자들이 자연스레 맡고, 남녀공학 다니는 애들 말로는 팀플에서 조장은 거의 남자, 여자들은 한계가 많아 조장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다.” (여대, 초 등교육과)

의미있는 타인

‘의미있는 타인’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특

정한 사회규범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동등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말한다(Hochler, 1984). 이 영역은 여대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 영역 중 두 번째로 빈도(219)가 높았다. 의미있는 타인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어머니(112), 아버지(25), 부모 외 직업 가계도(36), 사회적 관계(46) 등이다. 각각의 하위범주는 10개로 추출되었고, 어머니 범주는 세 가지 하위범주, 아버지 범주는

표 2. 의미있는 타인

범주	하위범주	빈도(219)	핵심주제
어머니		112	
	당당하지만 여유없는 직장인 어머니	53(22.3%)	일에 대한 자부심은 있으나 가정생활과의 양립이 어려움
	헌신적이지만 상실감을 느끼는 전업주부 어머니	43(18.1%)	가정을 위해 희생하지만 자기 삶을 우울하게 받아들임
	진로단절 극복 후 생기를 얻은 어머니	16(6.7%)	결혼과 육아로 단절된 경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을 통해 의미를 찾음
아버지		25	
	긍정과 지지의 아버지	14(5.9%)	딸의 선택과 활동에 긍정적인 지지를 보냄
	부정과 강요의 아버지	11(4.6%)	딸의 선택과 활동에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임
부모 외 직업가계도		36	
	여성 가족 구성원의 영향	24(10.1%)	가계도 내 여성 가족구성원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영향
	특정 직업군의 영향	12(5.0%)	부모 외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가계도 구성원의 직업 풀림
사회적 관계		46	
	역할모델의 상징적 영향	22(9.2%)	본보기가 되거나 닮고 싶은 사회적 인물들이 주는 영향
	남자친구와의 관계 영향	14(5.9%)	가족 이외 친밀한 이성의 영향
	선배 또는 친구의 일상적 영향	10(4.2%)	일상에서 친숙하게 형성된 동료와 선후배 관계가 주는 영향

두 가지, 부모 외 직업가계도는 두 가지, 사회적 관계는 세 가지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범주 빈도의 우선순위로 보면 어머니, 사회적 관계, 부모 외 직업 가계도, 아버지 등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의미있는 타인’ 영역에서 어머니는 어떤 관계보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드러났다. 여대생에게 있어서 ‘여성으로서 일’에 대한 성찰을 위해 어머니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존재였다. ‘당당하지만 여유 없는 직장인 어머니’(53), ‘헌신적이지만 상실감을 느끼는 전업주부 어머니’(43), ‘진로단절 극복 후 생기를 얻은 어머니’(16) 등으로 분류되었다. 크게 보면 전업주부와 워킹맘 어머니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여대생들이 얻는 영향은 공통된 내용이 많았다.

또한 여대생들의 ‘일’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워킹맘 어머니, 전업주부 어머니, 진로단절 극복 어머니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성에게 일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직접 보여주었다. 어머니들은 일을 통해 ‘자기실현, 생계유지 및 가족 부양, 남편과의 관계에서 평등 유지, 정서적 안정과 행복’ 등을 보여 주었다. 어린 시절 전업주부 어머니의 삶이 행복해 보이고, 만족도가 높아 보였다는 여대생들의 평가마저도 성장과정에서 어머니의 상실감을 확인하면서, 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하위범주를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엄마가 일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 엄마

의 모습을 본 후로, 어느새 엄마를 동경하게 되었던 것 같다...엄마는 항상 ‘여자도 자기 직업이 있어야 당당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남녀공학, 법학과)

“일하는 여성에 대해 ‘멋있는 여성’이라는 환상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어머니” (여대, 언론홍보영상학과)

“초등학교 입학 무렵 나는 어머니가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 원망스러웠다. 가정주부 어머니인 집과 달리 숙제도 간식도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꾸준히 일한 어머니의 모습이 자기 실현” (여대, 사회학과)

“어렸을 적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대부분 집에 계셨기 때문에 일하는 어머니를 친구들보다 식사나 준비물, 숙제 등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커리어가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고...직업적 측면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커리어를 갖는 여성이 되고 싶었다.” (남녀공학, 건설환경공학과)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처럼 주부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하지만 이 생각은 중학교에 들어오면서 변하였다. 엄마는 내가 중학생이 되자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였다. 나는 잘 알지 못했던 일하지 않은 엄마가 지닌 모습은 많이 우울하고 외로웠다.” (남녀공학, 역사교육과)

“엄마는 다시 은행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엄마는 정직원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이 나이에 계속이나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남녀공학, 영화영상학과)

“엄마는 결국 우울증에 걸리셨다. 하지만 엄마는 그 병을 바로 직장을 가짐으로써 극복하셨다. 육체적으로 힘들어보여도 정신적으로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 (여대, 섬유예술학과)

아버지

‘의미있는 타인’ 영역에서 아버지는 가장 작은 빈도로 언급되었지만, 그 영향력을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가 ‘여성으로서의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일 뿐,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아버지 범주는 크게 두 가지 하위범주로 ‘긍정과 지지의 아버지’(14), ‘부정과 강요의 아버지’(11)이다. 빈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세대는 권위적인 아버지보다 수평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에 익숙하다. 긍정과 지지의 아버지 유형은 어린 시절부터 자녀와의 대화가 많거나 진로선택에 있어 자녀 스스로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 추가 된다.

‘부정과 강요의 아버지’는 권위적이며 자녀의 진로선택에서 스스로 찾게끔 도와주기보다 부모의 일방적 지시를 더욱 중요시 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유형에 따라 딸인 여대생의 자각은 어머니의 영향과는 또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긍정과 지지 유형의 아버지가 키운 여대생들은 매우 개방적이었고, 진로에 있어서도 자기실현, 자신의 흥미를 고려하고 행복한 일을 찾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부정과 강요의 아버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며, 딸에게 결혼이나 취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었다.

“나의 인생설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타인은 바로 아버지이다. 아버지와 나는 긍정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 아버지는 롤 모델이며 열정이 좋다. 나도 내 열정을 바칠 일을 찾고 싶다.” (여대, 통계학과)

“아버지는 나의 장래희망을 듣고 많은 책들을 사다 주시며 적극 지원해 주셨다.” (남녀공학, 신문방송학과)

“아빠는 무엇이든지 노력하고 간절히 바라다면 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격려와 응원의 말을..이런 반응 덕분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여러 직업들을 자유롭게 꿈꾸며...” (여대, 역사교육학과)

“집안의 장남이신 아버지께서는 제가 간호사가 되기를 바라셨고 저의 전공도 결정하시고 이제는 제게 취직에 대한 생각을 주입하고...” (남녀공학, 생명과학과)

“아빠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자꾸 내가 자신감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그러나 빨리 독립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여대, 관현학과)

부모 외 직업가계도

이 범주는 부모 이외에 여대생들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 직업가계도 상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부모의 영향이 여대생에게 근본적인 일의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을 준다면 직업가계도의 관계들은 직업군에 대한 구체화, 어머니 이외 다른 여성 가족의 직장생활이나 다중역할의 경험 등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하위범주는 두 가지로 ‘특정 직업군의 영향’(12), ‘여성 가족 구성원의 영향’(24)으로 나뉘었다. 특정 직업군의 영향은 주로 직업가계도에 친인척들이 공무원, 교사, 은행원 등과

같은 안정 지향의 직업을 가진 경우 여대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큰 아빠와 외삼촌이 공무원인 것이 큰 영향을 미쳐 나도...” (여대, 국문학과)

“은행에 다니던 이모는 결혼하면서 바로 퇴사, 회사에 다니시던 고모는 아기를 낳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커리어가 뛰어나도 여자가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힘든 일인가.. 그에 비해 여자에게 교사라는 직업은...복지제도나 방학 등 많은 장점” (남녀공학, 국어교육과)

“이모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선택, 십년 넘게 일을 했지만 공학계열의 일이다보니 직업 특성상 야근이 많고 주말근무가 많아서 아기가 생기고 나서는 일을 하기 힘들었다...결국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아르바이트처럼 하고” (남녀공학, 지리교육과)

“사촌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 언니는 아이가 밤낮 없이 울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남편은 매일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직전에 했던 일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공무원으로 전직” (남녀공학, 경제학과)

“우리집은 공무원 집안이라고 할 만큼 공직 근무자가 많다. 공무원이거나 선생님.. 만족도가 높아서 나도 솔깃... 나에게 공무원이 되라는 압력을...” (남녀공학, 통계학과)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로 분류된 이 범주는 ‘의미있는 타인’의 영역에서 두 번째로 여대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다. 여대생들이 가족 이외에 맺고 있는 관계에서 얻게 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험을 의미한다.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 관계는 세 가지 하위범주로 남자친구(14), 선배나 친구의 영향(10), 역할 모델의 영향(22) 등이다. 남자친구의 영향은 여대 여학생들의 서술에서 더 자주 등장하였는데, 가족 이외의 친밀한 남성으로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선배나 친구가 주는 영향의 내용도 남녀공학과 여대 여학생들이 다소 달랐다. 남녀공학 여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남자선배에게 더 많이 노출된 반면, 여대 여학생들은 여자 선배가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주로 등장하는 역할 모델은 존경했던 선생님의 영향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인턴십에서 만나게 된 고위직 여성, 미디어에 노출된 유명인, 전문 강사, 스포츠스타 등이 거론되었다.

“남자 친구는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로망.. 나는 나중에 결혼을 하고도 할 수 있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남녀공학, 법학과)

“남자친구는 유학하여 뉴욕에 있는 직장인, 그를 통해 진로고민과 동기, 열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여대, 서양학과)

“선배님들께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 한 평생 한 번 사는 것인데, 꿈을 굳이 작게 접을 필요가 무엇이 있냐고. 그 대화는 내 마음 속 깊이...” (남녀공학, 경찰행정학과)

“우리 과의 한 선배는 남편과의 사별로 본의 아니게 두 아들을 홀로 부양, 나도 뭐가 됐든 오래 일하는 일을 찾아야 할 것” (여대, 국제사무학과)

“인턴에서 만난 회사 여자 이사님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나도 꼭 배우고 싶다.”
(남녀공학, 중문학과)

“김미경씨의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다. 지금의 스타강사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노력” (남녀공학, 법학과)

“내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영향으로 훌륭한 교사가 되려고 한다.” (남녀공학, 국어교육학과)

턴십, 아르바이트 등 직접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 이외 경험은 여행, 교육활동, 봉사,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을 의미한다. 두 범주는 여대생들이 실제 일을 해 보며 해당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는 것(103)과 일 이외에 자신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70)에 대한 분석이다. 직접적인 일 경험을 갖고 있는 여대생들이 많았으며, 일 경험 이외에도 자신을 위해 다양한 모색을 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참여활동 경험

‘참여활동 경험’ 영역은 직접적인 일 경험과 일 이외의 다양한 경험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여기서 일 경험이란 제한적이지만 인

일 경험

‘일 경험’을 통해 체득한 성찰 내용을 분류한 결과, 네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네 개의 하위 범주 중 ‘직무에 대한 적성과 흥미

표 3. 참여활동경험

범주	하위범주	빈도(173)	핵심주제
103			
일 경험	직무에 대한 적성과 흥미의 고려	54(22.7%)	직업 내에 실제 직무경험을 익히며 자신의 적성과 흥미 적합성을 판단함
	다양한 인간관계 속 갈등과 대처	25(11.0%)	일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하고 대처함
	고된 노동을 통한 현실인식	15(6.3%)	일 경험에 동반된 일상적 노동의 고충을 이해하고 현실을 파악함
	조직문화 위계와 규율 인식	9(3.8%)	조직 내의 효율성과 통제를 위해 규제와 질서를 인식함
70			
일 이외의 다양한 경험	다른 세계로의 호기심과 인식확장	26(10.9%)	미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탐구심과 인식의 폭이 확대
	결핍을 통한 방황과 성장	26(10.9%)	개인적 결핍이 방황의 시간을 주며 이를 통해 성장의 기반이 되기도 함
	새로운 잠재력 발견	18(7.7%)	다양한 경험을 겪으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잠재력을 확인함

의 고려'(5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인간관계 속 갈등과 대처'(25), '고된 노동을 통한 현실인식'(15), '조직문화 위계와 규율인식'(9) 등의 순으로 빈도가 정리되었다. 여대생들은 뚜렷한 진로계획이나 목표가 서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일 경험을 시도하고 여기서 어떤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들에게 일 경험은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자신의 진로설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인 '직무에 대한 적성과 흥미의 고려'는 여대생들에게 실제 일을 해 보며 자신의 선호와 역량에 대한 고려,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현실 직무 속에서 인간관계의 다양한 갈등과 고된 노동현실을 파악하고, 조직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복합적 상황을 경험하였다. 또한 남녀공학과 여대 여학생들의 일 경험 빈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남녀공학 여학생의 경우 여대 여학생 보다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이 더 많았다. 일 경험에 관한 여대생들의 성찰내용은 아래 제시된 바와 같다.

“의류에 관한 일을 해가면서 어느새 뚜렷한 목표와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었다.” (여대, 의류학과)

“아르바이트 이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해 보고 싶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내 갈 길이 아니라는 확신” (남녀공학, 산업시스템공학과)

“1년 정도 요가 강사로 일을 한 적이 있다...나의 인생에 있어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줄 만큼 가치 있는 일” (남녀공학, 신문방송학과)

“학원에서 중학생 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나

를 발견할 수 있는 경험, 조금은 더러울 때도 있는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엿 볼 수 있었다.” (남녀공학, 국어교육학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상처받고 빈정 상하는..” (여대, 생명과학과)

“팀장님의 눈치를 보며 몸은 몸대로 맘은 마음대로 힘들었다. 난생처음 해보는 진짜 사회에서의 일에 진짜 남의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생각이 들었고” (여대, 섬유예술학과)

“중소기업 사무직 알바를 하면서 그때 깨닫기 시작 ‘나는 죽어도 사무직이나 공무원 등은 못하겠구나...’” (여대, 한국음악학과)

“손님을 대하는 것, 학생을 대하는 것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었다. 노동과 사회는 여성에게 특히 나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여대, 수학과)

일 이외의 다양한 경험

두 번째 범주인 ‘일 이외의 다양한 경험’은 직무와 연관된 일 경험을 제외하고 여대생들이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결핍의 사건, 봉사, 진로 모색과 자기성찰 활동, 다양한 교육 참여, 동아리, 프로젝트 참여 등을 정리한 것이다. 여대생들은 ‘일 이외의 다양한 경험’ 범주에서 ‘다른 세계로의 호기심과 인식확장’(26), ‘결핍을 통한 방황과 성장’(26)을 언급하였다. 또한 다양한 경험활동을 통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잠재력 발견’(18)이 중요한 내용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봉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생님으로서 나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남녀공학, 역사교육학과)

“책을 통해 간접경험도 많이 하고... 동아리, 봉사활동, 공부 등 내가 좋아하는 활동 분야가 어디인지 찾고자 노력” (여대, 인문과학부)

“내가 선택한 직업에 대한 100%의 확신은 없다. 그러나 ‘여행 이전의 나’와 ‘여행 이후의 나’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 바로 도전할 수 있는 힘, 용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남녀공학, 국어교육학과)

“부모님이 이혼했고 아래 여동생들을 챙기며 장녀로서 가정 형편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자각으로 꿈과 직업사이에서 고민” (남녀공학, 영화영상학과)

“대학에 오자마자 밴드부 활동을 해보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내 갈 길은 아니라는” (남녀공학, 산업시스템공학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 이 과정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돈이 아니란 것을” (남녀공학, 경제학과)

“인천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활동경험 때문에 결단력과 리더십을 자각하게 되었다.” (남녀공학, 통계학과)

“실패의 트라우마로 인해 직업에 대한 생각의 오류를 발견” (여대, 한국음악학과)

“진로 변경에 따라 삼수를 하게 되었다. 나의 진로 방향성에 숨결을 불어 넣어 준 계기는 여행이었다.” (여대, 체육학과)

“교환학생을 다녀온 것은 큰 전환점이 되었고, 다시 외국을 가겠다는 또 하나의 목표를 설정” (여대, 불어불문학과)

성찰이후 변화

‘성찰이후 변화’ 영역은 성찰활동 이후 여대생들이 일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변화, 자신의 진로모색에 대한 새로운 계획의 내용 등에 대한 반영이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지향하는 성 역할 결정’(104)과 ‘진로선택을 위한 활동계획’(112)의 두 가지 내용이였다. 이 영역은 여대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 영역 중 세 번째로 빈도(216)가 높았다. 각각의 하위범주는 6개로 추출되었고, 지향하는 성 역할 결정과 진로선택을 위한 활동 계획 모두 각 세 가지 하위범주로 정리되었다.

지향하는 성역할 결정

여대생들이 일의 의미를 성찰한 이후 변화된 태도나 결심 중에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지향하는 성역할’에 대한 자기 결정이다. 여대생들의 자기 결정을 분류한 결과 세 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세 개의 하위 범주 중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가정지향’(6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독신을 고려하는 일 지향’(29), ‘육아에 집중하는 가정지향’(13) 등의 순으로 빈도가 정리되었다. 여대생들은 자신의 미래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직장과의 결혼, 육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솔직히 토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갈등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신중함이 엿보였다. 익히 예상 되어지는 다중 역할의 갈등 속에서도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일·가정 양립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독신을 고려하는 일 지향’에서는 여성이 처한 상황이 긍정적일 수 없다

표 4. 성찰이후 변화

범주	하위범주	빈도(216)	핵심주제
104			
지향하는 성역할 결정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가정 지향	62(26.1%)	일·가정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방 법을 고민함
	독신을 고려하는 일 지향	29(12.2%)	다중역할의 어려움을 감당하기보다 일을 통해 자기실현에 집중하고자 함
	육아에 집중하는 가정지향	13(5.5%)	결혼과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두고 양육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
112			
진로선택을 위한 활동계획	개별화된 자기개발의 노력	50(21.0%)	진로탐색 활동이 개인적인 자기개발 계 획으로 진행됨
	구체적 직종탐색	34(14.3%)	목표 직업과 직무에 대한 체험과 준비를 더욱 구체화
	전공을 벗어난 열린 진로모색	28(11.8%)	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다양한 진로 모색 활동을 수행함

는 판단 하에 자기에게 집중하려는 의지가 강했고, 종종 전업주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작용했다. ‘육아에 집중하는 가정지향’의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다중역할에 대한 부담, 전업주부 어머니의 긍정적 영향, 일하는 어머니가 준 어린 시절의 상실감, 육아에 대한 애착, 취직(취업대신 시집가는 것에 대한 신조어)에 대한 집안권고 등이 자주 확인되는 내용이었다. ‘지향하는 성역할 결정’에 관한 여대생들의 성찰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 보조해 줘야하고... 결혼이라는 갈림길에서 나의 가정이 직업보다 우선” (여대, 지리교육학과)

“엄마가 전업주부여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나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대, 경제학과)

“일하는 엄마와의 친밀감 없는 나, 결혼 후 일 그만두고 육아에 충실한 엄마가 될 것” (남녀공학, 통계학과)

“남자와 결혼을 제외시키고 나니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 (여대, 유아교육학과)

“일을 하는데 있어서 가정과 육아가 걸림돌, 독신주의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과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 (남녀공학, 경제학과)

“아이와 남편 뒷바라지 하며 전업주부로 사는 것은 끔직, 여성도 자기 커리어를 반드시 가져야” (여대, 중문학과)

“나는 남편과 맞벌이를 할 것이며 직장에 자리 잡고 아이를 낳을 것, 커리어를 계속 유지” (남녀공학, 경영학)

“우리 엄마처럼 모든 것을 잘 해내는 진정한 알파우먼이 될 것” (여대, 통계학과)

“원더우먼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 (여대, 인문과학부)

진로선택을 위한 활동계획

‘진로선택을 위한 활동계획’은 여대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성찰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여대생들의 활동 계획을 분류한 결과 세 가지 하위범주로 정리되었다. 세 개의 하위 범주 중 ‘개별화된 자기개발의 노력’(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체적 직종탐색’(34), ‘전공을 벗어난 열린 진로모색’(28)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화된 자기개발의 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성찰 이후에도 확실한 목표나 진로활동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범주에서 여대 여학생들의 서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성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사례이다. ‘구체적 직종탐색’의 범주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계획들이 확인된다. 전공과 관련된 경험이나 풍부한 조사활동, 복수전공, 관련 자격과정 확인과 취득 계획, 향후 일정 등이다. 반면 ‘진공을 벗어난 열린 진로모색’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경험활동 등이 가장 많이 강조되었다. 풍부한 경험을 강조한 배경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적 선택을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관한 사례는 아래 제시된 바와 같다.

“학교 시스템도 많이 활용해보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 좀 더 성찰하고 목표 범위를 좁힐 것” (남녀공학, 건축학과)

“미뤄두었던 영어공부를 하고... 3학년 때는 교환학생을 갈 계획” (남녀공학, 국제통상학과)

“영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는데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앞으로도 그럴 것” (남녀공학, 영화영상학과)

“2학년에는 전공과 관련된 직종 탐구와 조직문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대, 광고홍보학과)

“내가 원하는 직종이 무엇인지 더 현실감 있게 찾아보는 태도가 중요” (남녀공학, 신문방송학과)

“보험 설계를 하다 보니 경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귀농도 계획” (여대, 지구과학교육학과)

“현재 국어국문학과로 진학해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따기 위해 열심히 노력” (남녀공학, 문예창작학과)

“진짜 나에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적합한지 다른 흥미롭고 관심과 재능이 있는 커리어가 있는지 찾아보고” (여대, 섬유예술학과)

“커리어라는 도구를 얻기 위해 부모와 선생님들의 틀을 벗어나 이 길 저 길 탐험하는 젊은 여대생의 모습” (여대, 불문학과)

“일부러 전공과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를 찾은 것도 새롭게 경험하며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자” (여대, 도자예술학과)

논 의

본 연구는 여대생들이 ‘여성으로서 일’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학 사회에서 여대생들에게 제공할 진로 상담의 논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여대생들의 성찰 보고서에서 ‘여성으로서 일’의 개념과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료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석과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4개의 영역, 10개의 범주, 3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서술 자료 분석에서 가장 빈도 높게 나타난 영역을 순서대로 보면 ‘진로장벽’, ‘의미있는 타인’, ‘성찰이후 변화’, ‘참여활동 경험’ 등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주요사항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영역은 ‘진로장벽’으로 크게 두 가지 범주인 내적, 외적 장벽으로 나뉘었고, 각각의 장벽들은 4가지의 하위범주로 분류되었다. 진로장벽 영역은 총 272개로 추출되어 성찰내용 중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는 참여 여대생들이 ‘일’에 대해 생각할 경우 가장 먼저 부정적인 경험을 떠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적장벽에서 가장 높은 범주인 ‘다중역할의 부담’과 외적장벽에서 가장 높은 ‘학교 밖의 일상화된 성차별’의 상호 관련성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적장벽에서는 ‘다중역할의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대생이 미래의 결혼과 육아에 동반되는 책임에 대해 커다란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성식과 정철영(2007)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여대생이 인식한 가장 높은 진로장벽은 다중역할로 인한 갈등으로 드러났으며, 남녀공학 여학생이 여대 여학생들보다 진로장벽을 더 높게 인식한 맥락과 유사하다. 여대생들은 결혼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 더욱 민감한 반응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시각을 가지며, 남편의 역할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해 꺼려진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여대생들은 기본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힘들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이 느끼는 다중역할에 대한 부담은 사회 제도의 미흡함에 대한 불신,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 선배나 주변여성(어머니, 가계도)들의 삶에서 확인한 고통, 결혼을 통해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만 당연시되는 가정에서의 역할 등으로 인해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사회가 서구 문화에 비해 여성들의 가족 지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 여성이 자신의 진로 발달에 집중하고 이를 우선시하는 진로지향성을 지니게 되면 불가피하게 복잡한 내적, 외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중운, 박성실, 2010)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지향성에 의하여 남성과는 다른 진로 선택을 할 수 있으며(Peake & Harris, 2002), **이로부터** 자유롭다고 할지라도 가정과 진로간의 갈등, 양육에 대한 책임 등으로 인하여 남성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Eisenhart & Holland, 1992). 이러한 복잡한 갈등은 지금의 여대생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이 느끼는 불안은 과거에 비해 더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 개인의 몫이라는 생각, 사회적 고정관념에 대한 불편함, 불충분한 지원과 사회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여성들이 다중역할에 대한 갈등을 실제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는 시기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계획을 구상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혼과 출산에 해당되는 시기가 아님에도 이와 같은 불안감

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여대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한다.

‘다중역할의 부담’에서 나타난 여대생들의 불안은 내적장벽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낮은 자기효능감’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와 남녀공학 여학생들에게 고르게 드러났는데, 스스로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신념이 낮았다. 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이 낮은 몇 가지 이유로 분석된 것은 취업과 사회에서 여성이 당하는 차별에 대한 위축감,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하고 조직생활에 적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미래에 예상되는 진로단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직업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여대생들의 서술도 적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다중역할의 부담’에서 결혼은 덜레마였지만, ‘낮은 자기효능감’에서는 여대생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으로 고민되기도 했다. 결혼에 대한 여대생들의 양가적 시각은 향후 새로운 연구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내적장벽의 또 다른 하위범주인 ‘비전통적 진로선택의 어려움’에서 남녀공학 공대 여학생의 특수한 상황은 주목할 만하다. 남학생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공대에서 여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정체성을 숨겨야만 비전통적 직업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비전통적 직업군에 대해 본인이 관심이 있더라도 가족의 조언, 주변의 편견, 남성 중심의 영역에서 오는 차별 등과 연계되면서 지속적인 진로지향을 갖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공대는 여전히 남성중심의 산업영역이며, 비전통적 진로를 모색하

는 곳으로 그곳에 소속된 여성은 특이한 존재라는 편견에 여성 스스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찰 내용을 보면 남성과의 관계에서 이기기 위해 여성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근본적으로 여성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 등이 드물지 않게 발견되었다. 도승이(2009)에 따르면 남성중심적인 문화에 익숙한 전공교수들을 포함한 사회의 성역할 기대가 여성공학도의 학업과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환경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진로장벽의 두 번째 범주인 외적장벽은 내적장벽보다 다소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여대생들은 내적장벽보다 외적장벽의 영향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적장벽의 하위범주를 빈도순으로 보면 ‘학교 밖의 일상화된 성차별’, ‘안정성 신화에 가려진 성별화 된 직종’, ‘여전히 존재하는 아들 선호’, ‘남녀공학 대학에서 관습화된 성차별 문화’ 등이다. 하위범주에서 특이한 점은 여대보다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을 차별하는 관습적 문화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학교 밖의 일상화된 성차별’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직접적 경험으로는 인턴활동,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과정 등에서 겪은 차별이 대부분이었다. 간접적으로는 주변인들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통해 학교 밖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여성차별을 인식하고 있었다. 주로 직장 내에 존재하는 승진 제도, 복지 등에서의 여성차별을 실감하며, 여성으로서 정체성의 위축을 토로하였다.

또 다른 하위범주인 ‘안정성 신화에 가려진 성별화 된 직종’은 내적장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다중역할의 부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여성들의 다중역할 갈등에

대한 예상은 본격적으로 일을 경험하게 되는 성인기보다 청소년 때부터 미래의 결혼 및 육아에 수반되는 책임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덜 유망하고 임금이 낮은 진로를 선택하고(Hanson, 1994; O'Brien et al., 2000), 더 전통적인 여성 직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매향 외, 2003). 여성의 진로실현가능성에 대한 낮은 기대수준과 자신감은 성별에 따른 직업 선호도에도 반영되어 여대생들은 교육관련직,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직, 보건의료직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선호를 높게 보였다(신선미, 2003; 진미석 외, 2003; 최윤진, 임현정, 2010). 직업 선택 기준에 있어서도 ‘일단 돈이 많은 곳’, ‘사회적인 이름이 있는 곳’, ‘안정적인 곳’ 또는 ‘아나운서나 방송계 등 화려한 곳’을 중요하게 생각했다(장서영, 심우정, 이보라, 2006).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드러났다. 여대생들의 불안감은 직업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드러났다. 여대생들이 제시한 직업은 교사, 공무원, 약사, 간호사, 외국계 기업, 기타 전문적 직업 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직업군을 선택하려고 한 이유는 사회에 일상화된 **성차별을 덜 받기 위해**, 다중역할의 부담을 극복하려고,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등이 대부분이었다. 비전통적 직업군과 관련된 전공을 가진 여대생들도 안정성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부모 세대의 ‘안정된 직장’에 대한 여전히 집착과 여대생들의 낮은 자기효능감에 따른 일종의 진로타협으로 파악된다. 부모 세대의 ‘안정된 직장’에 대한 집착은 원래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작용해 온 것이지만, IMF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존재하는 아들선호’ 항목은 양성평등에 익숙한 부모세대가 아닌 조부모세대의 영향이 컸다. 가족 내에서도 남자 아이에 비해 여자아이에게 왜곡된 여성성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여대의 여학생들은 ‘여대는 시집 잘 가는 곳’이라는 편견에 노출되었으며, 반면 남녀공학 여학생들은 ‘관습화된 성차별 문화’에서 다양한 차별을 느끼고 있었다. 교사와의 관계에서 받는 차별,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의 대표성에서 겪은 차별, 군대문화, 술 문화에서 오는 차별 등이 다수였다. 여대 여학생들이 여성 중심의 문화에 익숙하여 남성 중심의 문화에 대한 경계심이 발달되어 있다면, 남녀공학 여학생들은 외적으로는 허물 없는 남녀관계에 익숙해 보였다. 이러한 남녀공학 여학생들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성차별적 문화의 관습에 익숙해져 민감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외적 환경에서 오는 차별을 겪으며, 여대생들은 내적으로 존재하던 심리적 장벽이 더욱 견고해지고 위축되어 자신의 진로모색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영역은 ‘의미있는 타인’의 영역으로 여대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네 가지 영역 중 두 번째로 빈도가 높다. ‘의미있는 타인’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어머니, 아버지, 부모 외 직업 가계도, 사회적 관계 등이다. 이러한 분류는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는 부모, 친척 등과 같은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Betz, 2012). 본 연구에서 추가된 범주는 ‘사회적 관계’로, 어머니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이유는 여대생들이 대학생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성인으로 맺게 되는 이성과의 관계가 의미있는 영향을 발휘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라는 존재는 여대생들의 일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역할모델이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이다. 전업주부와 일하는 어머니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 여대생들이 받은 영향은 상당히 컸다. 여대생들의 '일'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이 형성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워킹맘 어머니, 전업주부 어머니, 진로단절 극복 어머니 모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성에게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주는지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어머니들은 일을 통해 '자기실현, 생계유지 및 가족 부양, 남편과의 관계에서 평등 유지, 정서적 안정과 행복' 등을 중시하였다.

전업주부 어머니에게서 안정감과 우울을 동시에 느낀 여대생이 많았고, 일하는 어머니에게서는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대한 안쓰러움과 결핍, 존경의 복합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일하는 엄마를 둔 여학생들은 가정주부의 딸보다 더 남성적인 직업과 더 다양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Selkow, 1984), 이는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의 비전통적 진로계획은 어머니의 비전통적 직업과 관련이 있고(Zuckerman, 1981), 비전통적 진로목표를 가진 여대생은 비전통적 성역할의 신념을 가진 어머니가 있다는 연구결과(Steele & Barling, 1996)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 종류나 유무보다 일을 대하는 태도와 의미부여가 한국의 여대생들에게 영향을 더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비전통적 직업에 대한 여학생들의 추구는 가족 구성원 중에 남성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Hackett,

Esposito & O'Halloran, 1989; Weishaar, Green & Craighead, 1981)와 일치하는 내용이 많았다. 아버지는 가장 낮은 빈도이지만,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특히 '긍정과 지지의 아버지'일 경우 여대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수평적이고 열린 대화를 통해 진로선택의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경우가 많았다. 이 유형의 아버지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 과학, 컴퓨터, 운동 분야에서 딸들에게 취미를 길러주고, 사회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남성적 사고방식을 전수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딸들에게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격려하며 도전의식을 심어준다(최윤진, 임현정, 2010).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난 여대생들의 특징은 대체로 자기실현의 욕구가 매우 높고, 도전적이며 높은 자존감과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들이 자기탐색과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본격적인 사회진출을 미루면서 진로선택의 결정을 유예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반면 '부정과 강요의 아버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며, 딸에게 결혼이나 취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었다. 이런 아버지 유형의 딸들은 빨리 사회로 나가 심리적·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의지가 강해서 진로선택에서 매우 현실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좀 더 심층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다면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적 관계'로 분류된 범주에서 남자친구의 영향은 여대 여학생들의 서술에서 더 자주 등장하였다. 이 관계에서 여대생들은 아버지와 남자형제 이외의 친밀한 남성으로 자신과

차별화된 경험, 새로운 사회적 진출에 대한 모색,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주는 상대로 남자친구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배나 친구가 주는 영향'의 내용도 남녀공학과 여대 여학생들이 조금 달랐다. 남녀공학 여학생들이 주로 만나는 선배들은 남자들인 경우가 많아서, 직장생활과 해당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경험의 공유가 많았다. 반면 여대 여학생들은 여자 선배들의 진출 경험을 공유함과 동시에 그들이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 다중역할의 어려움 등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역할 모델의 영향'은 빈도는 높지만, 간접적 경험인 경우가 많아서 남자친구나 선배, 동료와의 경험보다 더 높은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시기에 만났던 '선생님'이 준 영향력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그이외** 사회적 유명인에 대한 인식은 예상외로 높지 않았다.

세 번째 영역은 '참여활동 경험'으로 '일 경험'과 '일 이외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여대생들의 참여활동 중 가장 많은 활동은 인턴십이었다.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현장체험을 통해 조직을 이해하게 된 것을 가장 의미 있는 학습으로 꼽고 있었다. 이들이 처음 체험한 조직의 모습은 개인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곳, 다양한 갈등과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곳, 실무경험을 통한 자기 이해가 심화되는 곳, 여성 직업인의 고충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다(장서영, 심우정, 이보라, 2006). 본 연구에서는 '일 경험'에서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직접적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더 확대하였다. 또한 '일 이외 경험'으로는 여행, 교육활동, 봉사,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이 포함되었으며,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일에 대한 관심이 심화될

수 있었다.

'일 경험'을 통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것은 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조직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보다 더 나아가 '직무에 대한 적성과 흥미의 고려', '다양한 인간관계 속 갈등과 대처', '고된 노동을 통한 현실인식', '조직문화 위계와 규율인식' 등 구체적인 경험들이 파악되었다. 이는 지금의 여대생들은 일 경험에서 다양한 실전 학습과 깊이 있는 관찰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 설계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여대생들의 '일 경험'은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경험들이 더 많았고, 목표지향성이 없는 '일 경험'도 자주 확인 되었다. 이는 '일 경험'이 향후 사회진출에 중요하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진행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대생들은 '일 경험'을 통해 다양한 조직 이해의 성과를 얻었지만, 성차별 경험을 현실적으로 접하게 됨으로써 향후 사회진출의 욕구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재학 중 직업 경험이 오히려 진로에 대한 결정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볼 때(Brooks et al., 1995; Cook, Parker & Pettijohn, 2004), 일경험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서 여대생들이 높은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생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여 실제 자신이 하게 될 일의 내용이나 성차별적 환경보다는 성공적인 커리어우먼의 이미지에 집중하고 이 환상이 깨어질 때 쉽게 일을 포기한다는 결과(장서영, 심우정, 이보라, 2006)를 볼 때 더욱 우려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에서 '자기실현'으로서 '일'을 인식하는 여성들을 쉽게 '일'을 포기하는 여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 사회에서 직업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고 볼 때, 여성들이 표현하고 있는 '자기실현'으로서의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의미를 일을 통해 실현해내고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금전적 보상과 경쟁을 강요하는 한국의 상황과 직업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일 이외의 다양한 경험'은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인식확장', '새로운 잠재력 발견', '결핍을 통한 방향과 성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일 경험'에서 충족되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한 활동을 하거나 일 경험 이후 더욱 풍부한 진로 모색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다음 항목에서 언급될 성찰 이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여대생들은 봉사, 교육, 문화, 여행 등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결핍의 경험도 학업과 연관된 실패 등이 많았다. 대학생 신분으로 '일 경험'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개인적 경험이 더 많았다.

네 번째 영역인 '성찰이후 변화'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한 내용은 '지향하는 성역할 결정'과 '진로선택을 위한 활동계획'이었다. 여대생들은 '지향하는 성역할 결정'보다 '진로선택을 위한 활동계획'에 더 중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이 차이는 '지향하는 성역할에 대한 결정'이 '진로장벽'과 연관된 측면이 많아 여대생들이 결정을 유보한 경우가 많은 것으

로 판단된다. 여대 여학생들이 남녀공학 여학생들 보다 다소 많은 의견을 표현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공간에서 정체체성에 대한 성찰과 공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대생들은 자신의 미래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직장과 결혼, 육아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솔직히 표현하였다. O'Brien과 Fassinger(1993)는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 책임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포부나 흥미 등에 의한 결정이기 보다는 부모, 배우자, 직업인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인가가 진로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처럼 여대생들은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갈등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대생들은 '다중역할의 부담'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면서도,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강한 신념을 보였다. 자신들이 미래에 '슈퍼우먼, 윈더우먼, 알파우먼' 정도의 역량을 가져야 하지만, 더욱 더 자신을 독려할 것임을 절박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지원 정책 도입, 가족관계에서의 변화와 지지, 긍정적 남편의 영향, 직장의 복지 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변화도 언급하였다. 여대생들이 자신을 극단적으로 독려하면서까지 일·가정 양립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볼 때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회피가 아닌 사회제도적 지원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독신을 고려하는 일지향'은 여성이 처한 갈등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심리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였다**. 사회제도적 지원도 믿

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이들 중에 같은 여성으로서 전업주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작용하였다. ‘육아에 집중하는 가정지향’의 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긍정적 선택은 전업주부 어머니의 긍정적 영향, 육아에 대한 애착 등이었고, 부정적 선택은 어린 시절 일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와 결핍, 취직에 대한 집안권고 등이었다.

여대생들의 ‘진로선택을 위한 활동계획’을 분류한 결과 ‘개별화된 자기개발의 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여대생들이 편향되고 개별화된 취업준비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김현미, 2001; 민무숙 외, 2002). 여대생들은 대부분 취업준비를 위해 학점관리, 어학관리 등 객관적인 지표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여대생들은 ‘단독으로 하는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김현미, 2001), 이는 남학생들이 주로 취업 스테디 참여, 인적 네트워크 관리 등 인맥 활용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하는 방식(노동부, 2003)과 대조된다고 비판하였다. 김현미(2001)는 여대생들이 취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학점, 외국어 성적과 같은 객관적 지표의 향상이 진입과정에서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객관적 지표에 집중된 취업준비는 정작 ‘일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에 대한 이해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기술을 준비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하여 실제 업무 현장에서 ‘뚝뚝하지만 일 못하는’ 여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김현미 외, 2001).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동일한 ‘개별화’된 여대생의 자기준비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여대생들의 개별화된 진로 준비행동이

여전히 많이 발견되었지만, 고무적인 변화도 엿보인다. 다른 두 가지 하위 범주인 ‘구체적 직종탐색’과 ‘전공을 벗어난 열린 진로모색’은 여대생들이 과거와는 차별화되는 선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 경험과 연계된 ‘구체적 직종탐색’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취합하는 디지털 세대로서의 발 빠른 면모도 확인된다. ‘전공을 벗어난 열린 진로모색’에서는 ‘일 경험’ 이후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결과 좀 더 다양한 자기 탐색을 기획하는 긍정적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청소년 시기 학업 성취에 갇혀 제대로 된 자기 탐색과 흥미의 고려 경험이 미약하다. 사회진출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좀 더 개방적 자세로 자신에게 맞는 ‘일’의 영역을 탐색하는 것은 향후 고된 직무에도 인내할 수 있는 자기 확신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여대생이 ‘여성으로서 일’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인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왜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대생의 진로상담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사회 내에서 여대생들을 위한 특화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많은 대학에서 여대생을 위한 특화된 센터와 기관, 교육을 점점 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분위기지만, 오히려 관련 교과목과 비교과목에서 그들의 진로장벽을 낮추고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진로상담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확대를 통해 진로동기와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들이 맞벌이 가족에서 겪을 수 있는 미래의 책임의식과 역할분담 등의 교육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직업

상담은 직업과 가정생활의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들을 다루고 문화적 규범들과 성역할 가치들, 앞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직장가정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Gilbert & Kearney, 2012). 즉, 남성들도 양육과 다양한 역할 관리와 관련된 것에 자기효능감을 획득하여 양육 역할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Betz, 2012). 셋째, 여성들이 비전통적 직종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확장을 위한 지원과 관련 활동을 연계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공계 여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충분히 살려 남성적 영역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이공계 대학의 여성 유지 관리에 대한 연구는 교수진의 피드백에 의해 여학생이 더 영향을 받으며, 교수진의 명확한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제안하며(Fassinger & Asay, 2012), 더 많은 역할모델과 공대교수들의 성인지적 교수법을 강조하였다(도승이, 2009). 이는 이공계 전공 여학생들에게 전공 교수들의 지원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지를 표하는 한 명의 상담자가 여성들에게 무익한 환경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Betz, 2012), 진로상담과정에서 여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통해 새로운 직업과 직무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도록 촉진해야 한다. 넷째, 여대생의 효과적인 인턴십과 진로활동 확장을 위한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인턴십 이전에 조직문화와 직무환경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개별화된 경험이 외에 창업 시도 등 사람들과 협업하고 조율하는 경험을 주는 등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업에 참여하는 여대생의 자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수자와 강의실 분위기를 의식하여 성찰보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서울시내 한 남녀공학과 여대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한 내용이라 한국의 모든 여대생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대에 다니는 여대생들의 인식은 담아내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남학생과 다른 일의 의미와 개념을 좀 더 다면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통해 여대생들이 직업을 통해 '자기실현'이라는 의미에 몰입하는 것의 원인과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가 탐색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여대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진로교육에 공통된 특성과 영향관계를 탐색해 보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아버지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직장을 가진 어머니가 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엄마와의 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전업주부의 딸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결핍감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들이 후속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영매 (2006). 일본 여대생, 그들에게 직업이란 무엇인가. 청소년문화포럼, 14, 46-75.
 강은주, 한주희(2009). 일-가족 갈등의 선행변수로서 개인적 특성. 대한경영학회지,

- 22(4), 1937-1960.
- 강이수, 신경아 (2001). 여성과 일. 서울: 동녘.
- 김병숙 (2007). 직업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2011). 한국 여대생의 진로지향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다중역할태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2(4), 161-185.
- 김은희, 김봉환 (2010).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른 진로탐색 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연구. *직업교육연구*, 29(4), 165-183.
- 김중운, 박성실(2010). 진로장벽탐색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29(3), 209-230.
- 김진숙 (2004). 대학생들의 일의 개념. *상담학연구*, 5(4), 973-991.
- 김현미 (2001). 연세 여학생 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모형개발. *연세여성연구*, 7, 140-171.
- 김현미, 나윤경, 김현경, 이정주 (2001). 연세 여학생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연세대학교 여학생처.
- 노동부 (2003). 여대생의 직업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노동부.
- 나윤경 (2005).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 남녀공학대학교의 남성중심성: 여자대학교와 남녀공학대학교를 경험한 여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1(2), 181-222.
- 도승이 (2009). 여성공학도의 역할모델과 성역할기대, 학업동기, 진로동기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3(4), 769-785.
- 민무숙, 허현란, 김형만 (2002). 여대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대학의 지원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6.
- 박은주, 전형미 (2011). 여대생의 직업의식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87-105.
- 신선미 (2003). 성별에 따른 청년층의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의 차이: 여성 청년층을 위한 진로정책 검토.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산업인력공단.
- 신선미, 정경아, 구정화 (2008). 여대생의 직업세계 인식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손은령 (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 송보라, 황정은, 이기학 (2008). 여대생의 지각된 진로장벽, 자존감, 사회적 지지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664-665.
- 유홍준 (2000). *직업사회학*. 서울: 경문사.
- 이성식, 정철영 (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인과모형.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4), 83-109.
- 이주희, 전병유, Jane Lee (2004). *유리천장 깨뜨리기: 관리직 여성의 일과 삶*. 서울: 한울아카데미.
- 장서영, 심우정, 이보라 (2006). 재학 중 인턴십 경험이 여대생의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 *Andragogy Today*, 9(1), 1-32.
- 정고미라 (2000). 노동 개념 새로 보기: 감정

- 노동의 이해를 위한 시론. *노동과 페미니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정아 (2000). 대졸 여성의 노동 경험과 직업 의식 신화. *노동과 페미니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지승희, 주영아, 김영혜 (2014). 슈퍼비전 경험과 되고 싶은 슈퍼바이저 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5(5), 1671-1693.
- 진미석, 윤희한 (2003).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대학 재학생 희망직업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수욱 (2003). 여대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요인탐색.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진, 임현정 (2010). '알파걸'의 실재 및 진로발달 특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1(2), 203-230.
- 한지현, 장재운 (2005). 남성 또는 여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개인특성 및 구직행태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3), 585-609.
- 홍정순 (2015). 진정성 구성 개념 탐색에 관한 질적 연구. *인간연구*, 30, 가을호, 109-139.
- 황매향, 조효진, 조윤진, 방지원 (2013). 대학생의 일의 의미와 진로 결정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675-699.
- Astin, H. S. (1984). The meaning of work in women's lives: A sociopsychological 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4), 117-126.
- Betz, N. (2012). Basic issues and concepts in the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of women. In W. Bruce Walsh & Mary J. Heppner(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for women*(pp. 45-74). New York & London: Routledge.
- Brooks, L., Cornelius, A., Greenfield, E., & Joseph, R. (1995). The relation of career-related work or internship experiences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eni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6(3), 332-349.
- Cook, S. J., Parker, S., & Pettijohn, C. E. (2004). The perceptions of interns: A longitudinal case study.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January/February, 179-185.
- Eisenhart, M., & Holland, D. (1992). Gender constructs and career commitment: The influence of peer culture on women's commitments in college. In T. Whitehead and B. Reid(Eds.), *Gender constructs and social issues*(pp.142-180). Champaign,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Reprinted in Wyer, et al.(Eds.) *Women, science, and technology*. NY: Routledge, 2000.
- Farmer, H. S. (1976). What inhibits achievement and career motivation i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2), 12-14.
- Farmer, H. S. (1997). *Diversity and women's career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 Farsinger, R. E. (2002). Hitting the ceiling: Gendered barriers to occupational entry, advancement, and achievement. In L. Diamant & J. Lee(Eds.), *The psychology of sex, gender, and jobs*(pp. 21-46). Westport, CT: Praeger.
- Farsinger, R. E., & Asay, P. A. (2012). Counseling for women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STEM) fields. In W. Bruce Walsh & Mary J. Heppner(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for women*(pp.

- 427-452). New York & London: Routledge.
- Fitzgerald, L. F., & Fassinger, R. E., & Betz, N. (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2nd ed., pp. 67-11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reud, S. (1961).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J. Strachey, Ed. & tran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Ltd.
- Gerson, K. (1986). *Hard choices: how women decide about work, career, and motherhood*.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ilbert, L. A., & Kearney, L. K. (2012). Sex, Gender, and Dual-Earner Families: Implications for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W. Bruce Walsh & Mary J. Heppner(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for women*(pp. 193-217). New York & London: Routledge.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Monograph*, 28(6), 545-579.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ckett, G., Esposito, D., & O'Halloran, M. S. (1989). The relationship of role model influences to the career salience and educational and career plan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2), 47-56.
- Hanson, S. L. (1994). Lost talent: unrealized educational aspiration and expectations among U. S. youths. *Sociology of Education*, 67(3), 159-183.
- Hill, C. E. (2016). 합의적 질적 연구 - 사회과학 현상탐구의 실질적 접근 -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2에 출판).
- Hoelter, J. W. (1984). Relative Effects of Significant Others on Self-Evalu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3), 255-262.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16-329.
- Peake, A., & Harris, K. L. (2002).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The Influence of Gender, Career Traditionality, and Marriage Pla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3), 405-421.
- Selkow, P. (1984).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kindergarten and first-grade children's vocational aspirations. *Sex Roles*, 11(7), 677-690.
- Steele, J., & Barling, J. (1996). Influence of maternal gender role beliefs and role satisfaction on daughters' vocational interests. *Sex Roles*, 34(9), 637-648.
- Weishaar, M. E., & Green, G. J., & Craighead, L. W. (1981). Primary influences of initial

- vocational choices for college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1), 67-78.
- Wonnell, T., & Hill, C. E. (2000). The effects of including the action stage in dream interpre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72-379.
- Zuckerman, D. M. (1981). Family background, sex-role attitudes, and the goals of technical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Sex Roles*, 7(11), 1109-1126.

1차원고접수 : 2015. 00. 00.

심사통과접수 : 2015. 00. 00.

최종원고접수 : 2015. 00. 00.

A Qualitative Study on How Female University Student Explores the Meaning of ‘Work as a Woman’

Yunseo Iem

Yoonjung An

Dongguk University

In order to explore the ‘meaning of work as a woman’, this study has analyzed 238 women’s self-examining report from Seoul’s both co-ed and women’s university by using CQR-M. As a FUS(female university student) analyzing the meaning of oneself as a woman, I have broken down the results into 4 areas. First area indicates the barriers that career-pursuing FUSs face. The internal barriers related to their career as a woman is recognized as four sub-categories; general denial of femininity, the difficulty of non-traditional career choices, the burden of multiple roles and low self-efficacy for oneself. The external barriers are also recognized into several. Such as, still-existing son preferences, generalized gender inequality in co-ed university, institutionalized gender inequality outside of school, gender specified jobs with veiled stability, etc. Second area is significant others the FUSs are shown as father, mother, and others. Under the category of father, it is divided into supportive and optimistic father or pessimistic and forcing father. Under the category of mother, it is divided into three; out-going yet busy working mothers, devoted yet depressed mothers, and the mothers with overcoming career discontinuity. The others that give influence includes certain employees, and female family members other than mother, relationships with partners, friends, and role models. Third area is the experience of FUSs, which falls into two sub-categories: work-related, and non-work related. The work related experiences is again subdivided into the following situations, situations that required to follow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ts rules, handling complex relationships, taking under consideration of one self’s interest, and realization of the reality after hard labor. Non-work related experiences FUSs have had are subdivided into three, which are as follows. Interest and curiosity to different worlds and expansion of perception, discoveries of hidden talents, overcoming personal crisis and following maturity after the crisis. Last area is the desiring female’s role in the future has divided into three, which are family-oriented motherly female, work-oriented independent female, and female who seeks the combination of both work and family despite the difficulties. The choices that one would make for better building of one self’s career included differentiated effort for self-development, specific research on desiring jobs, job opportunitie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current major. This analysis suggests diverse career issues concerning FUSs can be utilized for their career counseling.

Key words :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meaning of work, career barriers, significant others, participation experiences, CQR-M